

순교자 주보



에블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1월 1일

NO.2180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p>안 그래픽스 인쇄, 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p>	<p>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p>	<p>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p>	<p>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요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p>	<p>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p>	<p>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p>
<p>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p>	<p>배용자 루시아 보험 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p>	<p>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p>	<p>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러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p>	<p>AAA 이창호 보험 Insurance Checklist 메디케어 신청, 변경 도와드립니다. 이창호 바오로 678-910-0884 cclee@acg.aaa.com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p>	
<p>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p>		<p>Suwanee ORTHODONTICS 스완니 교정 치과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p>		<p>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p>	
<p>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smkim@master-realty.com</p>		<p>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p>			
<p>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p>		<p>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p>		<p>滿天紅 Man Chun Tong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 천 흥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p>	
<p>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첼리 김 770-634-5646</p>		<p>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p>			
<p>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p>		<p>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p>		<p>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p>	
<p>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p>		<p>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p>			
<p>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셔츠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p>		<p>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p>		<p>朝鮮日報 에블렌타 조선일보 마케팅 사원 모집-0명 자격 요건에 따라 H1-B, 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보낼 곳: kookjinlee@yahoo.com 문의: 678-468-8565</p>	



〈목자들의 경배 (성모마리아)〉 1650~1655년, (바르톨로메오 에스테반 뮐러로1617~1682), 오일 캔버스, 187x228c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성 가	입당: 234	봉헌: 210	성체: 180/151	파견: 240
제1독서	민수기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2)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2독서	갈라티아서 4,4-7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16-21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영상제수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이는 아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루카 2,16-21)

그때 목자들이 ① [] 으로 16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② [] 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17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18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③ [] 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④ [] 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⑤ [] 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살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하던지, 때로는 아예 침묵하는 것이 훨씬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올라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젊고 패기 왕성했을 때 제 잘난 맛에 말 실수를 많이 해서 가장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깊게 주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랬죠.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뭐 농담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대했지요. 농담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농담인 것인데...

어쨌든 그로 인해 짓궂음을 단단히 물었지요.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귀가 얇아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고, 휘둘리고, 동정심은 많아 이리저리 도와주다 보니 금전적으로 손해도 보고 관계도 어색해져서 속앓이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복음 속에 성모님의 모습은 입과 귀를 잘 다스리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신비의 광경을 직접 보고 체험한 목자들과 이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지만 방년 17세 마리아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매우 침착하지만 냉정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묘사하는 말 중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지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저는 이 표현이 성모님의 Trade Mark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다가가 늘 기도하는 삶.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듣는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지니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성모님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무한한 신뢰가 깔려 있었던 거죠. 저는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제가 가장 부족했던 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속의 젊은 마리아는 저를 신뢰와 감사에 이르게 하는 길로 재차 초대하십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잠시 잊고 있었던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일 년 사이에 마리아는 신앙심이 더욱 깊어진 변모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얼굴이 변해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야 얼굴이 바뀌는 게 이치입니다. 추한 얼굴도 사랑을 품고 살면 아름다운 얼굴이 되고 아름다운 얼굴도 미움을 품고 살면 추한 얼굴이 됩니다. 산후 고통으로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환한 얼굴로 밝게 웃으시는 꽃처럼 예쁜 아기 엄마 마리아를 마음 속에 그려 봅니다.

| 성 찰 | 성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 ① 베들레헴 ② 구유 ③ 목자 ④ 간직 ⑤ 예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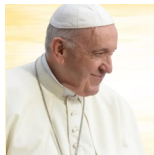
< 루카 2,16-21 >

배영길 베드로 신부


이분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신 이분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백신’ 없는 전쟁 바이러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한국어 

ENGLISH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2023년 1월 1일) 교황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교황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이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을 규탄하며 “또 하나의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히 전쟁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보다 물리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인간 마음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주민을 환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동의 존엄과 “적절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밤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의 재앙이 뒤따랐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발견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 56차 세계 평화의 날(2023년 1월 1일) 담화에서 최근 몇 년 간의 사건들로 취약해진 인류를 향해 이 같이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세상을 “치유”하고 이주민을 환대·통합하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각국 지도자, 국제기구의 책임자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



2020년 3월 2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별 기도

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과 필요에 마음을 열 수 있게 격려하는 새로운 연대감 △모든 이가 극적인 위기와 혼란에서 최선을 다해 벗어날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한 사람들의 영웅적 헌신 등이 있다. 교황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특정 이익을 제쳐두고 도전에 맞서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친 사회단체나 공공·민간기관, 국제기구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형제애와 사심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평화만이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략)

사회와 지구의 치유

교황은 이 같은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큰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곧, 보편적 형제애에 마음을 여는 ‘우리’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진정으로 공동의 선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헌신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모두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거나 결과입니다.” 교황은 “책임감과 연민의 정신으로” 현 세상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며 △모든 이의 공중보건을 보장하는 문제의 전면 재검토 △빈곤과 죽음을 낳는 분쟁·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행동의 촉진 △공동의 집을 돌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시행 △불평등 바이러스와의 싸움 △모든 이를 위한 식량과 존엄한 일자리 보장 등을 일종의 지침으로 제안했다.

“버림받은 이들”의 환대와 통합

교황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스캔들이 공공연한 상처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주민과 우리 사회가 버린 사람들을 환대하고 통합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며 담화를 마쳤다. Salvatore Cernuzio / 번역 안주영 www.vaticannews.va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24일 토요일) & 낮 미사(25일 일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8시 밤 미사와 일요일 10시 30분 낮 미사를 대축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낮 미사 후에는 성모회에서 준비한 미역국을 신자들이 점심으로 드셨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위해 봉사해 주신 사목위원회, 전례 분과, 성가대, 복사단, 제대회, 온라인 미사 봉사팀, 성모회 그 외 수고해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산타와 포토 타임>

성탄 대축일 미사 후에 주일학교 PTA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 나눔과 산타와 함께 사진찍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PTA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 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새해 첫날 기념하고 축하한다. 이 날은 성탄시기의 팔일 축제(팔부)의 여덟째 날이다. 교회는 의무 대축일 중 하나로 지정하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다. 또 성탄 팔일 축제에 맞추어 기념함으로써 '성탄의 의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와 '성모 공경의 의미'를 잘 연결해 주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은 어떻게 발전한 것일까? 이미 초세기(3세기 이전)부터 성모 공경이 이루어졌다. 곧 성모 공경이 대중 신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모 공경은 8월 15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냈다. 성모 공경에 대한 대중 신심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결정적으로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성모께 '천주의 거룩한 어머니'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그 이후 이날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바로로 6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한다.

예수 성탄의 의미가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을 겸손되어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였다. 성모님을 축하하고 경하는 이날은 성모님께서 주님을 받아들인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겸손된 자세로 주님께만 믿음을 두고 용기있게 주님께 투신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찾아본다. 그래서 이날의 전례는 성모님이 깊은 신앙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아드님 예수께서 주님(하느님)이시니 그분의 어머니께 어찌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1660년경), (1625~1713년), 유채, 미술사박물관, 빈, 오스트리아

새해 첫날 우리는 성모님의 깊은 신앙을 본받도록 노력하고, 성모님의 도움을 간구해보자. 그것은 성모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델이시기 때문이다.

나기정 신부 www.catholic.or.kr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부부의 기도

-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성사로 저희를 맺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성탄 대축일 밤미사	239명	주일헌금	\$ 11,353.00
성탄 대축일 낮미사	392명	교무금	\$ 4,781.00
		감사헌금	\$ 2500.00
미사참례 총	631명	성탄 구유 예물	\$ 5,388.00

교무금 명단

강익수 (1)	나창섭 (1)	소종선 (12)	이성철 (12)
곽성숙 (12)	노종업 (12)	송창률 (12)	이종상 (12)
김성강 (12)	박영섭 (1~4)	오현정 (10~1)	장민제 (1)
김영한 (1~12)	박영애 (11~10)	왕일모 (11~12)	장승희 (12~1)
김향순 (12)	박영희 (12)	이국진 (12)	주옥녀 (12)
김호수 (1)	박평하 (12)	이덕환 (12)	
김호진 (11)	방남규 (11~12)	이상호 (12)	

▶ 2022년 교무금 명단 누락 명단: 김영길, AA기금 누락 명단: 김영길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으나 약정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시 이름과 신자 번호, 봉헌 내역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남상우	송용덕	이수진	정지윤
강용조	문명재	심충섭	이승구	정창래
곽흥배	박두환	심호용	이주미	조보현
김남우	박종홍	안승범	이창호	조성환
김루시아	배정희	양경직	이홍규	지승남
김영철	백현숙	양재준	이홍철	차영수
김일환	손철영	오상수	이현두	최동순
김태규	서상희	유영한	이현옥	최문영
김향순	서재욱	유중현	장민재	한성인
김호수	서혁규	이동춘	전근섭	허민환
김홍섭	석대진	이복화	전 홍	홍동욱
김 훈	설재규	이봉조	정용선	홍영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9



Mary kept all these things, reflecting on them in her heart. Lk 2, 19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1. 마스크 착용은 자율
2. 미사중 응송 가능
3. 고해성사는 사제 사무실에서
4.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5. 미사 관련이 가능한 경우(애들랜다 교구청 지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아마존 스마일 프로 그램은 구입금액의 0.5%를 본당으로 보내어 션이 됩니다.
- 이용방법: smile.amazon.com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2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누계 납부액	\$ 1,020.00
달성률	- %
금주 납부액	\$ 705.00

2023년 AA 기금

Announcement Weekend: 2월 11-12일
Commitment Weekend: 2월 18-19일

2023 AA 기금 납부자

김경숙(아드리아) 김경숙(세실리아)
김상국 박영자 장민제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박재영 왕일모 이태훈

구역미사

1/13 (금) 7:30 pm	Tucker 구역 김중환 빠찌피코 770-356-7911
1/20 (금) 7:00 pm	Alpharetta 2 구역 유성열 다미아노 678-687-2064
1/27 (금) 7:30 pm	South Atlanta 구역 김일환 베드로 770-315-5504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2/31 (토) 오후 5:30	김주환	김경민 김경민	백지현 성리야 박재호 김아론 김매튜
1/1 (일) 오전 8:30	김현숙	서상희 서정원	소현자 이하윤 장재은 이주현 양다원
1/1 (일) 오전 11:00	이경환	이국진 이정란	김태훈 남소호 최예은 안상우 전지우
1/7 (토) 오후 5:30	윤 결	이재돈 곽예원	남소호 김태훈 최예은 안상우 도렉스
1/8 (일) 오전 8:30	황윤숙	최인영 남송은	성리야 박재호 김아론 이다은 이제후
1/8 (일) 오전 11:00	이경환	고근배 고숙영	이하윤 장재은 최미다 이주현 박시은
1/8(일) 오후 12:15			소현자 김소현

본당 캘린더

1월 1일	• 신년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 8일	• 주님 공헌 대축일 • 차타누가 공소 미사
1월 13일	• 초 축복 예식 (선교분과)
1월 13일~15일	• 고등부 피정(주일학교)
1월 22일	• 설날함동연미사/설날잔치
1월 29일	• 주일학교 2학기 개강 (첫 영성체/세례/견진 수업)

신년 미사 안내

- 신년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일시: 1월 1일(일), 8:30am, 10:30am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개학일: 1월22일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2차 헌금

- ARCHDIOCESAN HISPANIC MINISTRIES
일시: 1월 14일(토)/ 15일(일)

성모회 전신자 식사 제공

- 1월 1일 (일) 설날 떡국

알파레타 1구역 점심판매

- 일시: 1월 8일 교종미사 후 친교실
- 가격: \$5

청소년 기금 마련 잡곡판매

- 성모회 판매: 참기름, 다시마, 도토리국수, 취나물 등등
- 일시: 매주 교종 미사후 친교실

2023 매일 미사 책 신청

- 신청 장소: 주일 친교실 | 문의: 770-455-1380
- 연간 구독료: \$50

행사 및 모임 안내

- 구역장 회의
일시: 1월 8일(일), 12:00pm, 112호
문의: 김영경 에스더 770-676-8672
-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1월 8일(일), 12:00pm, 109호
문의: 이숙자 크리스티나 678-665-3882
- 구리아 월례 회의
일시: 1월 8일(일), 12:30pm, 소성당
문의: 황희숙 미카엘라 352-359-4283
- 원예반 신년 모임
일시: 1월 8일(일), 교종미사후, 113호
문의: 유인규 안젤라 267-760-1457

본당 알림

- **성가대원 (주일 8시30분 미사)** 및 반주자를 모집 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알뜰미용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상반기 주보 광고비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성물방 시간 :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담가능)
- **주보 관련 문의** : kmccga.bulletin@gmail.com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마르티니 추기경님의 '모세의 생애'
- 기간: 11월 10일 부터
- 일시: 수요일 오전 10:30-12:00, 소성당
목요일 오전 10:30-12:00 (신설반)
목요일 오후 6:00 - 7:00, 대성전
- 문의: 이혁륜 404-518-7373

2022-2023 예비자 교리반

- 수업시간: 매주 일요일 9:00am
- 수업장소: 112호
- 수업 외 일정: 본당 입학식/선발식/수도원 방문/수련식/세례 견진 성사/환영식
- 문의: 나상숙 678-933-7313 서미영 404-610-0057

성 루가 의료 봉사회 봉사자 모집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자원 봉사자와 진료를 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승남 토마스 470-747-2000

▶ 1월달에는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가 없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리아)
박정현(테레사)	채중현(아오스당)
박평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유옥희(모니카)	최순례(아나타시아)
이기산(스테파노)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연도 안내

- South Atlanta 구역의 차종진(요셉)형제님의 배우자이신 **故 차현찬 (로시)님**의 연도가 1월3일(화) 낮 12시 미사 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 12월 29일(목) **故 서재석 (요아킴)님**의 장례 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시간: 매주 일요일, 10:30am~12:00pm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일 대건 한국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9:15am~12:30pm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전례곡들이 바뀝니다

- 자비송: 306
- 대영광송: 316
- 거룩하시도다: 308
- 하느님의 어린양: 309
- 복음 환호송: 365
- 아멘: 385
- 신앙의 신비여: 373
- 주님의 기도: 387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389



애들랜다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청년회 'IT HELP DESK'

평소 궁금하셨던
핸드폰 설정
이메일
컴퓨터 세팅을
청년회에서
도와 드립니다!

1월 29일 교종미사 후 친교실에서 1시까지

이스라엘 생자순례모집

출발: 2023년 8월 30일 (10박11일)
지도신부: 김성현 라파엘 신부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접수마감: 30명 인원 충당시 까지
순례비용: 순례비, 항공료 포함 \$3500.00

문의: 정유진 레지나 470-210-7115
neutregina@gmail.co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